



정유화학태양광

[정유화학] 김정현 3771-9351
jh.kim@iprovest.com

[Weekly FAQ NO. 47] 현대에너지솔루션 탐방노트

- Analyst 총평: 태양광 실질 수요 회복이라는 주가 상승 재료가 아직 노출되지 않은 상황. 태양광 업종 비중 확대 전략 유효
- 전방 수요 현황: 한국 YoY 유지, 미국 QoQ 유지, 유럽 QoQ 회복. 한국/미국에서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 비용/스프레드 현황: 웨이퍼 가격 인상 분은 모듈 판매 가격에 대부분 반영. 당분간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Analyst 총평: 그린뉴딜 정책 시행에 따른 태양광 전방 수요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 정책 추진 의지가 강했던 유럽에서부터 점진으로 태양광 수요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으며 다른 주요 국가에서는 수요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 따라서 **태양광 실질 수요 회복**이라는 **주가 상승 재료가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 글로벌 태양광 설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 **태양광 업종 비중 확대 전략 추천**

Q1. 실적 가이드런스 있는지?

A. 아직 없음

Q2. 현재 설비 가동률 현황은?

- 보유 설비는 셀 600mw, 모듈 1,350mw(380w 모듈을 생산하는 기존 600mw와 430w를 생산하는 신규 750mw)
- 430w의 고출력 모듈을 생산하는 신규 750mw 설비는 8월부터 시험 가동해 9월 내 양산될 것
- 현재 셀 600mw는 생산 중단. 이유는 셀 생산 제품을 M3에서 M6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 예상 재가동 시점은 21년 1월. 투자규모는 200억. 참고로 M6 셀은 M3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 크기가 커
- 모듈 생산에 필요한 셀은 내부 재고 소진 및 외부 구매로 조달할 것
- 외주 모듈 공급 물량은 2020년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

Q3. 전방 수요는 어떠한지?

- 한국: 3분기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아직 그린 뉴딜 정책의 실질적 수혜가 확인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
- 미국: 3분기 수요는 2분기와 비슷한 수준. 자사의 주력 세그먼트는 가정용보다는 상업용/유틸리티. 상업용/유틸리티 비중 80%
- 기타: 3분기 유럽 수요는 2분기 대비 증가할 것

Q4. 최근 폴리실리콘/웨이퍼 가격이 상승했는데 모듈 가격에 전가가 되었는지?

- 원재료 인상분 판가에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모듈-웨이퍼 스프레드 유지. 처음에는 웨이퍼 공급사인 LONGi 가격 인상에 따라 스프레드가 소폭 축소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정상 스프레드로 회복된 상황
- 당분간 셀 생산 중단으로 웨이퍼 직접 구매가 없는 만큼 스프레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Q5. 대표이사의 동사 주식 매입 배경은?

- 당사의 CEO는 현재 당사 주가가 저평가라고 판단.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장내 매수한 것
- 참고로 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는 2019년 12월 4,000주, 2020년 1월 3,000주, 2월 3,000주, 8월 5,000주 등 4차례 매수해 현재 총 15,000주 보유 중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 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 기준일자_2020.06.30

구분	Buy(매수)	Trading Buy(매수)	Hold(보유)	Sell(매도)
비율	86.1	13.9	0.0	0.0

[업종 투자 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Underweight(비중축소):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Neutral(중립):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향후 6개월 기준, 2015.6.1(Strong Buy 등급 삭제)

Buy(매수):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이상
Hold(보유):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Trading Buy: KOSPI 대비 10%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Sell(매도):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